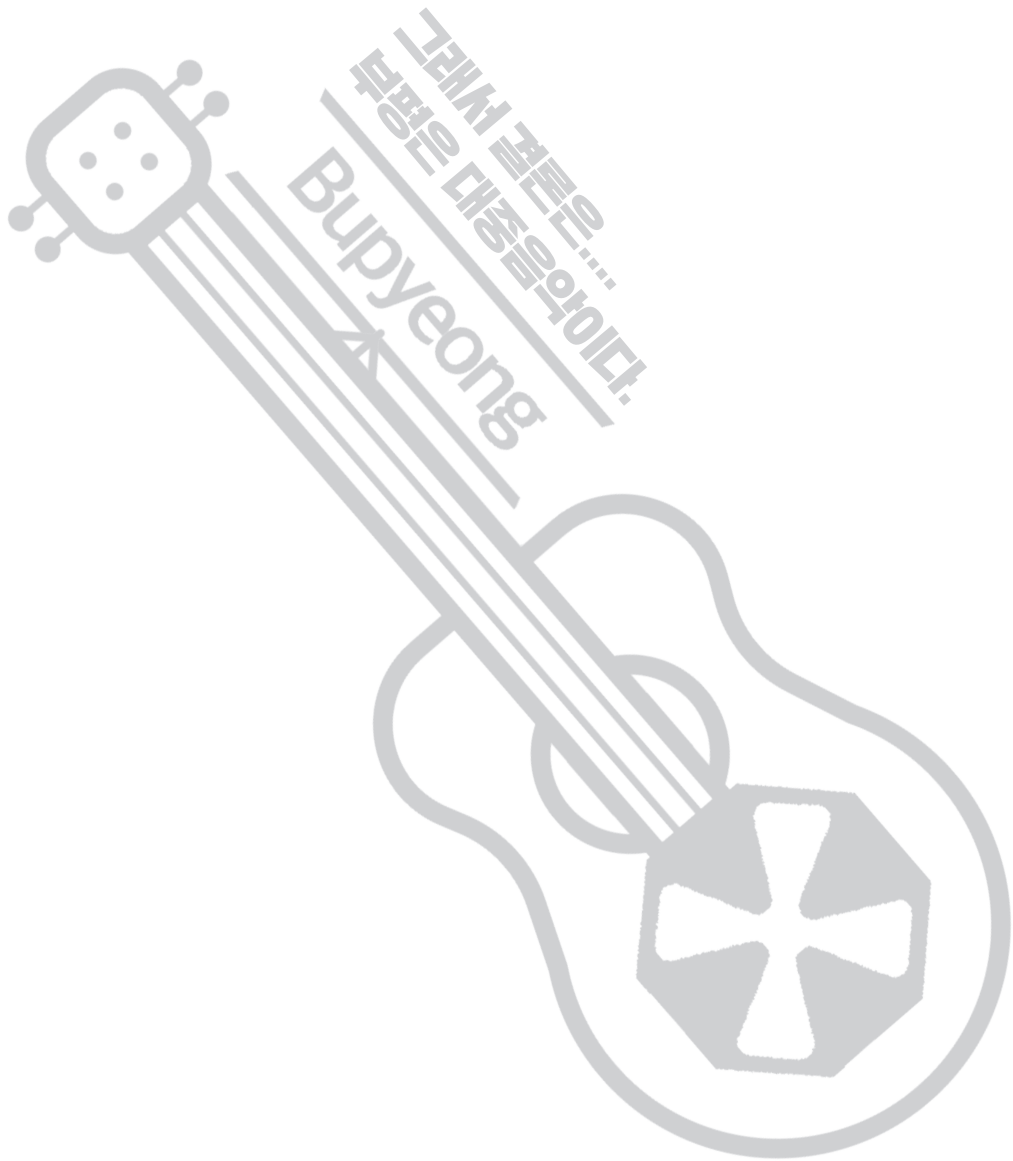




‘한국 대중음악중심지, 부평’
부평 = 대중음악이다



‘한국 대중음악중심지, 부평’ 부평 = 대중음악이다

목 차

I	개요	3
II	연구 일정과 내용	5
	1차 포럼 >> “한국대중음악 중심지, 부평”(자료)	6
	2차 포럼 >> 부평대중음악둘레길 1코스 “부평 애스컴시티, 대중음악 자산”(자료)	11
	3차 포럼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1코스(애스컴시티) 답사 자료1	20
	4차 포럼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 부평 신촌, 대중음악 자산(자료)	22
	5차 포럼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의필요성과 확장성”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이 이미 있었다.	31
	6차 포럼(답사)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39
	7차 포럼 >> 부평 삼릉, 대중음악 자산(자료)	43
	8차 포럼(답사)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 : 부평 삼릉 일원	49
	9차 포럼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답사.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조성 축하공연(부평공원)	51
	10차 포럼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관공자원화 전략 대중음악, 부평의 미래 살림이다.	55
	11차 포럼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BMW(Bupyeong Musicer Walking) 양성 전략 59
12차 포럼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전략 62
13차 포럼 >> 부평 대중음악을 기억하다 - 4인 토크쇼 66

III 연구성과73

IV 향후계획83

V 바람85

1. 취지

- 부평이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지였는데, 이런 사실과 관련 장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늦추거나 복원하기 위함.
- 부평 애스컴시티(미군기지)를 체계적으로 폭넓게 이해하기 위함.
- 연구모임을 통해서 부평 애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의 과거 기억과 흔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함.
- 부평 애스컴시티가 지역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함.

2.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8년 5월 20일 ~ 2018년 12월 15일
- 장소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주변 (부평 애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 부평 락캠프 등 부평 일원

3. 주관과 후원

- 주관 :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www.ascomcity.com)
- 후원 :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협력 :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문화복지분과, 부평구청, 부평 락캠프,

4. 내용

- 1) 연구 포럼 운영-부평시민 참여형
- 2)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을 위한 코스 개발과 연구
- 3)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답사
- 4)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지도, 리본, 뱃지 제작
- 5)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축하 공연 개최
- 6)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을 위한 4인 토크쇼
- 7)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연구 결과 보고서 제작

II

연구 일정과 내용

일시	내용	장소
6월 19일(화)	포럼 “한국대중음악 중심지, 부평”	부평 락캠프
7월 10일(화)	포럼 “부평 애스컴시티, 대중음악 자산”	부평 락캠프
7월 21일(토)	답사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1코스” (부평 애스컴시티)	부평 캠프마켓, 부평 락캠프
8월 14일(화)	포럼 “부평 신촌, 대중음악 자산”	부평 락캠프
8월 16일(목)	포럼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의필요성과 확장성”	부평 락캠프
8월 18일(토)	답사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부평 신촌)	부평 신촌, 부평 락캠프
9월 11일(화)	포럼 “부평 삼릉, 대중음악 자산”	부평 락캠프
9월 15일(토)	답사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 (부평 삼릉)	부평 삼릉, 부평 락캠프
9월 16일(일)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답사 및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축하공연(정유천 블루스 밴드)”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일원, 부평공원
9월 22일(토)	포럼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관광자원화 전략”	부평 락캠프
9월 29일(토)	부평 BMW(Bupyeong Musicer Walking) 양성 방안	부평 락캠프
10월 9일(화)	포럼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연구 성과 및 향후 계획”	부평 락캠프
10월 30일(화)	토크쇼 “부평 대중음악을 기억하다-4인 토크쇼”(박현호, 강오식, 임명철, 정유천)	부평 락캠프
12월 8일(토)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연구 결과 보고회 (기념 공연-정유천 블루스 밴드)	부평 락캠프

1차 포럼 - 6월 19일(화) 부평 락캠프

“한국대중음악 중심지, 부평”(자료)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포럼(1회차)

한국대중음악 중심지, 부평

2018. 6. 19(화) 오후7시 락캠프

이 장 열(ASCOMCITY MUSIC ART FAIR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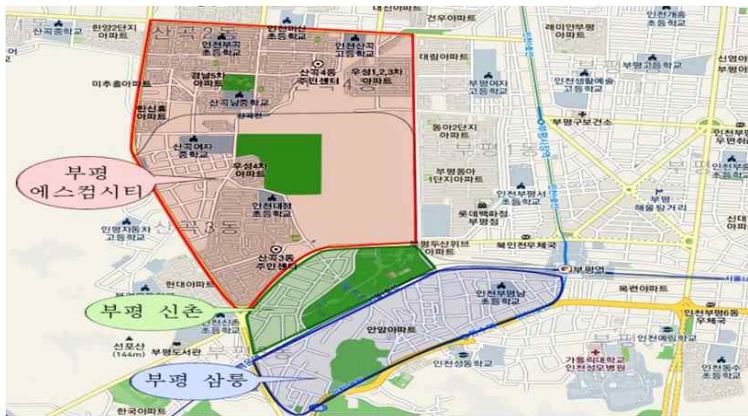
한국대중음악 중심지, 부평

[왜 ?] 문화 시장 형성

- 대중문화 3박자 갖춘 한반도에서 유일한 곳
생산 - 유통 - 소비
 - @ 파주, 의정부, 구미, 부산 등 (소비)
- 대중음악 최대 시장(1950년대 초~1970년대 초)
 - @ 부평 에스컴시타: 22개 음악클럽
 - @ 부평 신촌 일대: 22개 미군전용클럽
 - @ 부평 삼릉: 200~300여명 뮤지션 거주
- # 1962년 부평 에스컴시타: 한국인 종사자 8천 여명, 미군위안부 1천8백여명(동아일보)
- 라디오 매체 대량 보급
 - @ 1956년 10월. 인천시 라디오 보유 대수는 6,037대. 부평지역에만 1,01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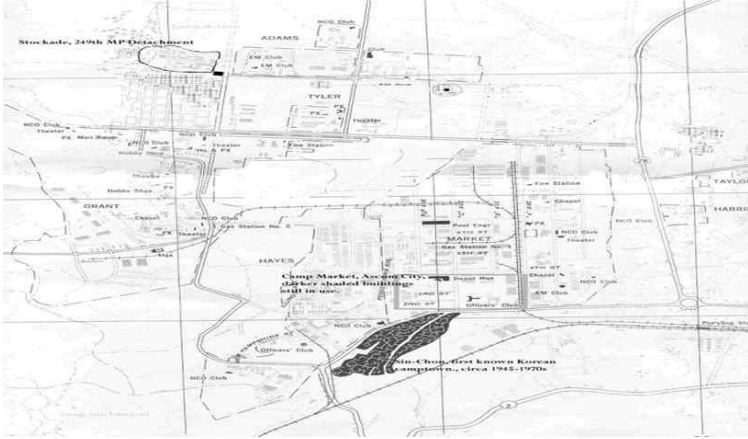
한국대중음악 중심지, 부평

[왜 ?] 인접성- 사이클 형성(1)



한국대중음악 중심지, 부평

[왜 ?] 인접성- 사이클 형성(2)



한국대중음악 중심지, 부평

[왜 ?] 인접성- 사이클 형성(3)



애스컴시티 미제1해병사단 부사관 클럽(NCO Club) 개관식 공연(1952. 5. 17)

한국대중음악 중심지, 부평

[그런데 ?] 외부 요인

- 1971년 초 미군철수 정책



한국대중음악 중심지, 부평

[그런데 ?] 내부 요인

- 문화 가치 인식 부족 -대중문화 인식 결여
- 부평사 편입 거부감 -기존 잣대

한국대중음악 중심지, 부평

[어떻게 ?] 복원

- 부평사에 대중음악사 기술/기록
- 대중음악의 역사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 부평 지역 초중고에 대중음악 관련 교육/의무
- 매년 1년 대중음악 페스티벌 개최
- 부평 대중음악 육성을 위한 구 조례 제정
- 미군기지 관련 시설물(군용철로) 보존 등

한국대중음악 중심지, 부평

[그래도 ?]

- 부평구민과 커뮤니티 형성

감사합니다.

2차 포럼: 7월 10일(화) 부평 락캠프


부평대중음악둘레길 1코스
“부평 애스컴시티, 대중음악 자산”(자료)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연구]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포럼(2회차)

부평 애스컴시티 대중음악 자산

2018. 7. 10(화) 오후7시 락캠프

이 장 열 대표(Ascomcity Music Art Fair)

주관: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후원: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평 애스컴시티-역사

미8군 군수지원사령부(Army Support Command)

- 1945년 8월 . 조병창 자리에 미24군수지원단ASCOM24 주둔
- 1945년 9월 16일 "애스컴시티" 명명
- 1949년 미군 철수
-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직후 미해병대가 다시 주둔
- 1973년 6월 30일 애스컴시티 공식 폐쇄
- 2018년 현재 캠프마켓(Camp Market)만 운영. 캠프마켓 면적 약 44만m²



부평 애스컴시티-현황

[구성] 7개 캠프

- 애스컴시티(ASCOMCITY):
캠프마켓(Camp Market), 캠프그랜트(Camp Grant), 캠프테일러(Camp Taylor)
캠프타일러(Camp Tyler)

- 쿼터마스터시티(QUARTERMASTER CITY):
Camp Adams, Camp Harris, Camp Hays

* 캠프명을 미국 대통령 이름으로 변경(1963년도)

[부대명]

121후송병원, 55보급창, 6의무보급창, 565공병자재창, 19병기창,
44통신대, 512정비대대, 55항공대, 8057보충대, 37공병대, 8057보충대,
37보충대, 76보충대, 79병참대대, 44공병대, 76공병대, 70자동차부대, 74자동차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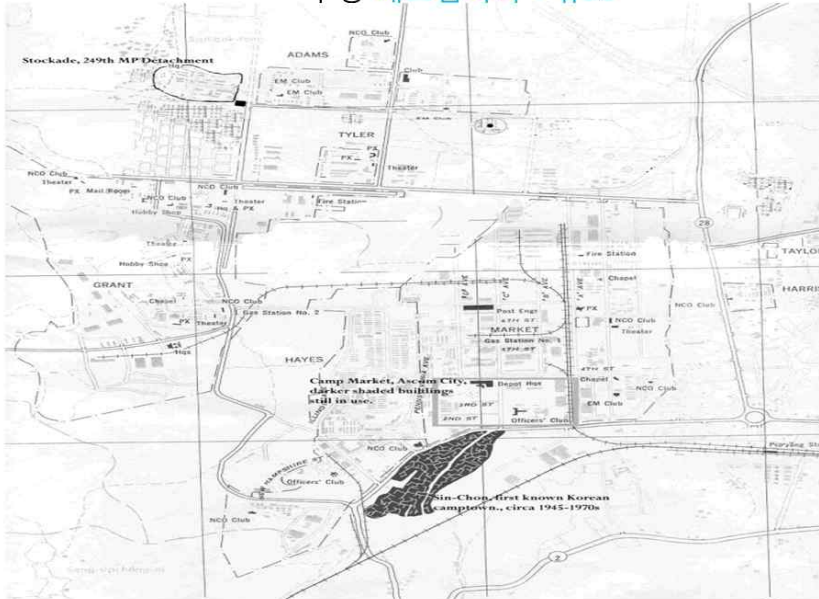
* 현재 캠프마켓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포함되어 있음.

부평 애스컴시티-규모



1952년 8월 20일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제79병참대대의 조감사진으로 부평 육군기지창(ASCOM)과 활주로가 보임.)

부평 애스컴시티 - 규모



부평 애스컴시티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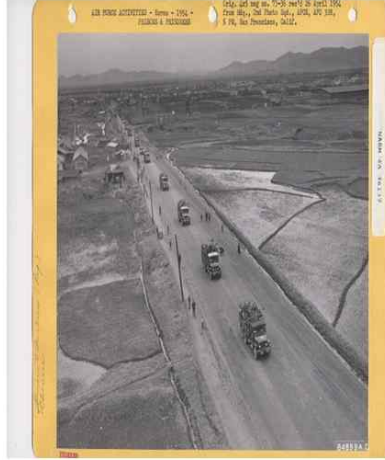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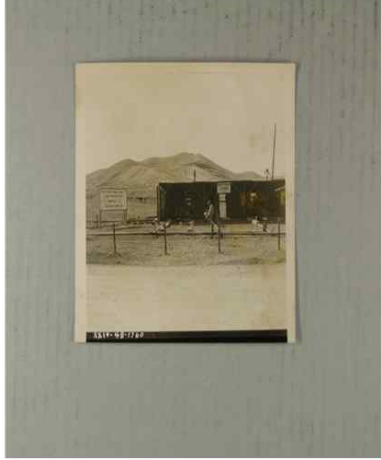
부평 애스컴시티 396위수병원(1948. 1.19)과 한국인 졸업생(1948. 4. 2)

부평 애스컴시티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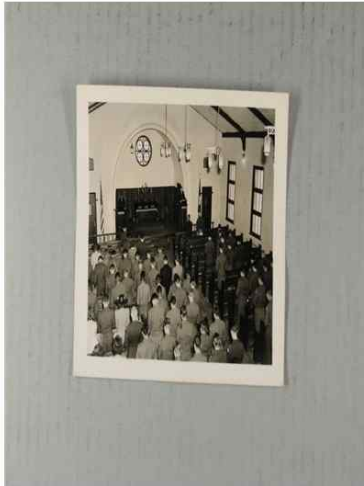


1948. 4. 18 인천항과 잇는 송유관 애스컴시티

부평 애스컴시티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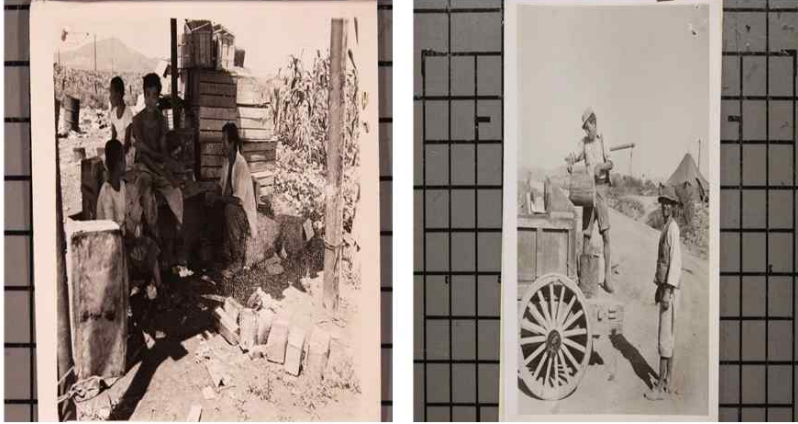


부평 애스컴시티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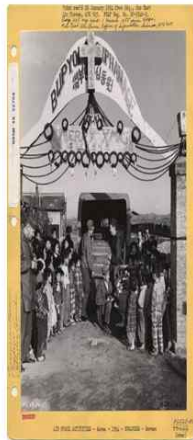
1948. 2. 21 군수지원사령부(ASCOM) 내 61병기단의 종교시설에서 열린 오전 예배.

부평 애스컴시티 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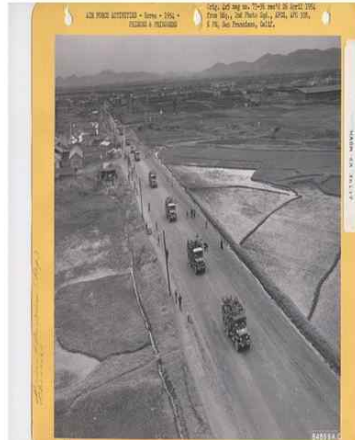


1953. 8. 3~8. 5 부평 애스컴시티 주변

부평 애스컴시티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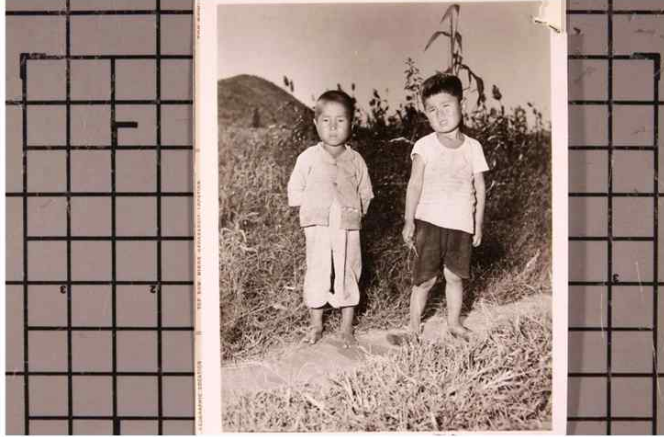


1954. 1 미제5공군 군목 Vernon F. Kullowatz 소령이 210,000파운드의 의복을 트럭에 싣고 서울 인근에 위치한 부평성심동원에 도착하자 원생들이 환영



1954. 1. 12 육군기지창(ASCOM)에서 인천항으로 이동중인 중공군 반공포로들의 수송 차량을 항공촬영한 사진

부평 애스컴시티 인근



1952. 10. 2 한국전쟁당시 육군기지창(ASCOM)에 위치한 미해병대 캠프 주변을 2명의 한국 고아들이 음식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모습.

부평 애스컴시티 대중음악 자산 - 범주

- 음악클럽(극장 포함): 22군데
- 한국인 밴드 연주자: 미8군 오디션 통과
- 미국 대중음악
- 미군 : 음악 소비자(향유층)

부평 애스컴시티 대중음악자산-클럽현황

구분	장교클럽 (offier's Club)	부사관 클럽 (NCO Club)	사병 클럽 (EM Club)	Club	극장 (theatey)
Camp Market	1	2	1		1
Camp Grant	-	4	-		4
Camp Tyler	-	-	-		1
Camp Hayes	1	2	-		-
Camp Adams	-	1	2	1	-
Camp Harris	-	1	-		-
Camp Taylor	-	-	-		-
합계 (22)	2	10	3	1	6

부평 애스컴시티 대중음악 자산 - 활용방안

- 클럽 위치 고증 작업(캠프마켓 바깥) - 2018년
- 클럽 앞 표지판 설치 - 2019년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1코스 조성 - 2018년
^ 리본 제작
- 기념 공연 등 - 2018년

부평 애스컴시티 대중음악 자산-비전과 과제

[비전]

- 미국 대중문화(음악) 소비 공간으로서 역할
- 부평의 새로운 미래 성장 엔진 '대중음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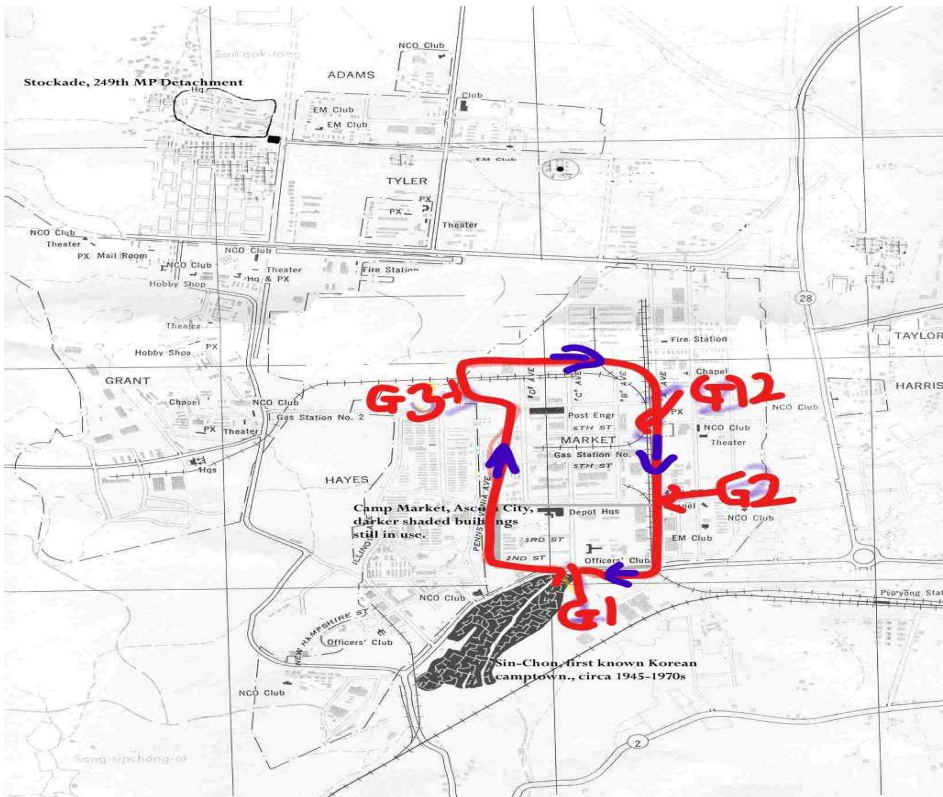
- 캠프마켓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여러 문제 해결(환경, 민원 등)
 - ^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 추진상황
 - 사업기간: 2010. ~ 2022.
 - 사업비: 4,915억원
 - 사업규모: 440,000㎡(오수정화조부지 5,785㎡ 별도)
 - 사업내용: 공원(315,120㎡), 도로(25,400㎡) 부지매입
- 부평의 대중음악 자산에 대한 지역민들과의 결합력 강화

감사합니다.

3차 포럼 : 7월 21일(토) 부평 애스컴시티, 부평 락캠프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1코스(애스컴시티) 답사 자료

▣ 부평 애스컴시티 지도(1960년대 중반)



▣ 1코스 답사 경로(중요 지점)

캠프마켓 게이트1(출발) → 펜실베니아 에비뉴 → 부영공원 → DRMO

게이트 3 → 군용철도(산곡천) → 산곡초등학교 앞 쪽 → 캠프마켓 게이트 12 → 군용철도 → 캠프마켓 2 → 군용철도 → 신촌교 앞(마무리)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축하 공연

- 2018년 09월 16일(일) 예정

▣ 4차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포럼

- 2018년 8월 14일(화) 오후6시. 부평 락캠프

- 부평 신촌 대중음악 자산(이장열 발제)

4차 포럼: 8월 14일(화) 부평 락캠프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 부평 신촌, 대중음악 자산(자료)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연구]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포럼(4회차)

부평 신촌 대중음악자산

2018. 8. 14(화) 오후6시 락캠프

이 장 열 대표(ASCOMCITY MUSIC ART FAIR)

주관: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후원:  인천광역시  IFAC 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평 신촌-역사

- 일제강점기 조병창(일본 육군조병창) 주둔으로 마을 형성
- 1945년 미군 주둔
- 1949년 미군 철수
- 1950년 인천상륙작전 직후 미해병대 주둔
- 1955년 이른바 미군위안부 다수 거주. 미군전용클럽 성업
- 1973년 애스컴시티 폐쇄. 미군전용클럽 서울 이태원 이동
- 2018년 현재 부평3동(행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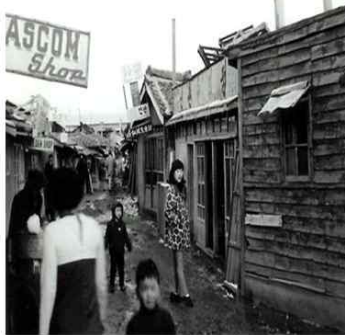
부평 신촌 -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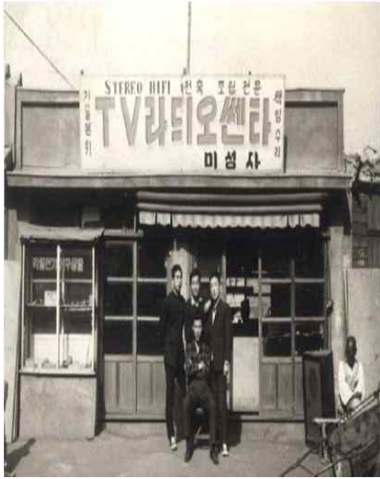
참고-부평 캠프마켓(현재)



부평 신촌 - 내부



부평 신촌 -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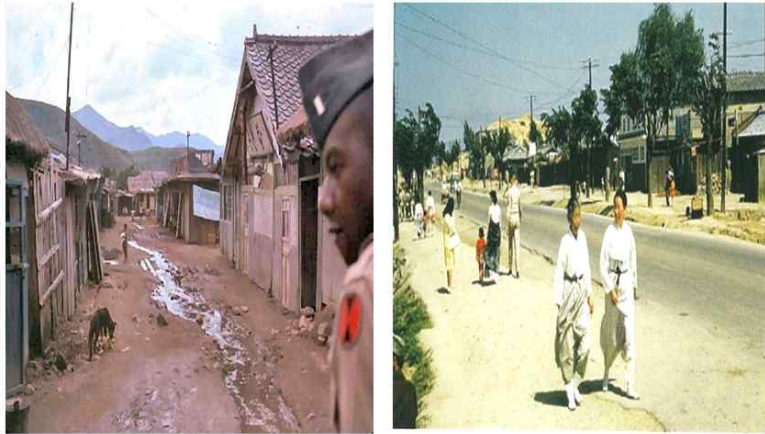


부평 신촌-내부



드림보트 클럽
(현 부일옥 자리)

부평 신촌-내부



부평 신촌 대중음악 자산 - 범주

- 미군전용클럽: 22군데
- 미군위안부(이른바 양공주): 대중음악 매개자
* 1962년 당시 1천800여명 거주
- 한국 청년(대중음악 향유층)
- 대중음악 미디어(전축, LP판, 백판, 라디오 등)

부평 신촌 대중음악자산-클럽현황

번호	유형	소재	유형유무	비고
1	부평 신촌	아리랑클럽	있음	공연 가능.
2	부평 신촌	드림보트클럽	있음	백인전용클럽, 부일옥
3	부평 신촌	세븐클럽	있음	컨트리 음악을 연주한 클럽이다.
4	부평 신촌	키클럽	없음	백인선호
5	부평 신촌	화이트로즈(송도홀)	없음	백인 군인 전용, 밴드연주가능.
6	부평 신촌	홍콩홀	없음	
7	부평 신촌	서브달라클럽	없음	흑인 전용 클럽
8	부평 신촌	플레이보이 컨츄리 (뉴컨츄리클럽)	없음	백인 전용 클럽
9	부평 신촌	브라더 클럽	미확인	*새로 발견(키클럽 맞은편)
10	부평역 근처	아폴로클럽	있음	*1969년 12월 오픈, 1990년대 문 달 들
11	부평 삼흥	유니버설클럽	있음	*부평 삼흥, 1980년 중반 운영.
12	부평 삼흥	윈더클럽	없음	*부평 삼흥, 정확한 위치 파악 안됨
13	부평 청천동	로타리클럽	없음	*부평 청천동.
14	부평 신촌	맘보홀	없음	흑인선호
15	부평 신촌	그린도어클럽	없음	
16	부평 신촌	신일홀	없음	
17	부평 신촌	신정홀	없음	
18	부평 신촌	신세계클럽	없음	
19	부평 신촌	수도클럽	없음	
20	부평 신촌	편양홀(뉴유포)	없음	

부평 신촌 대중음악 자산 - 활용방안

- 미군전용클럽 운영 및 위치 고증 연구 - 2019년
- 미군전용클럽 앞 표지판 설치 - 2019년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조성 - 2018년
* 리본 제작 및 달기(2018년 9월 16일 일요일)
- 기념 밴드 공연 등 - 2018년 9월 16일 부평공원

부평 신촌 대중음악 자산-비전과 과제

[비전]

- 한국대중음악 유통의 중심 공간으로서 역사성
- 미군기지 바깥에 미군전용클럽 22개 성업(한반도에서 가장 많음)

→ 기반

- 부평지역 대중음악 유통공간 집약
 - 음악클럽 및 음악관련 상업시설 유치
 - 음악 관광코스 개발

[과제]

- 부평 음악융합도시 사업 방향 재고 및 검토 시급
 - 부평 신촌에 음악클럽(정기 연주 가능한 곳) 유치 예산 없음
 - 지역 대중음악자산과 연계한 사업 추진 미흡과 방식 재고
 - 올해 하반기 부평 게더링 사업(2억 2천만원) : 부평 지역 음악 자산과 결합? 지속가능성?
- 부평의 대중음악 자산에 대한 지역민들과 결합력 강화

감사합니다.

■ 논의 내용

-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18:00~19:20
- 장소 : 부평 락캠프
- 참석 : 인수범, 김은미, 김정근, 이장열, 임영주, 변인화, 김미령, 황찬, 정유천, 이재병, 이미령, 이관복, 최광필, 정현길 등 14명.

■ 발제

- 부평 신촌 대중음악자산과 활용방안 등 - 이장열 대표(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 (PPT자료)

■ 논의

- 부평 신촌 미군전용클럽에 몰래 몰래 드나들면서 미국의 대중음악을 접한 한국 청년들도 대중음악 자산 범주에 포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이들에 대한 구술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 당시 부평 애스컴시티에 근무한 미군들이 부평 신촌에서 어떤 음악을 듣고 즐겼는지에 대한 현존하는 미군들을 찾는 작업도 필요함.
- 부평 신촌 음악클럽의 운영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필요하고, 부평 애스컴시티가 공식 폐쇄된 뒤에 부평 음악클럽 운영자들이 서울 용산 이태원으로 이전해서 영업을 계속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이 보다 구체화되고, 부평이 한국대중음악 중심지로서 20여 년을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 5차 포럼 일정 답사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 부평 신촌 답사
 - 일시: 2018년 8월 18일(토) 오후5시
 - 집결: 부평 2001아울렛 앞
- *답사 시간이 변동 가능합니다.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의필요성과 확장성”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이 이미 있었다.

이장열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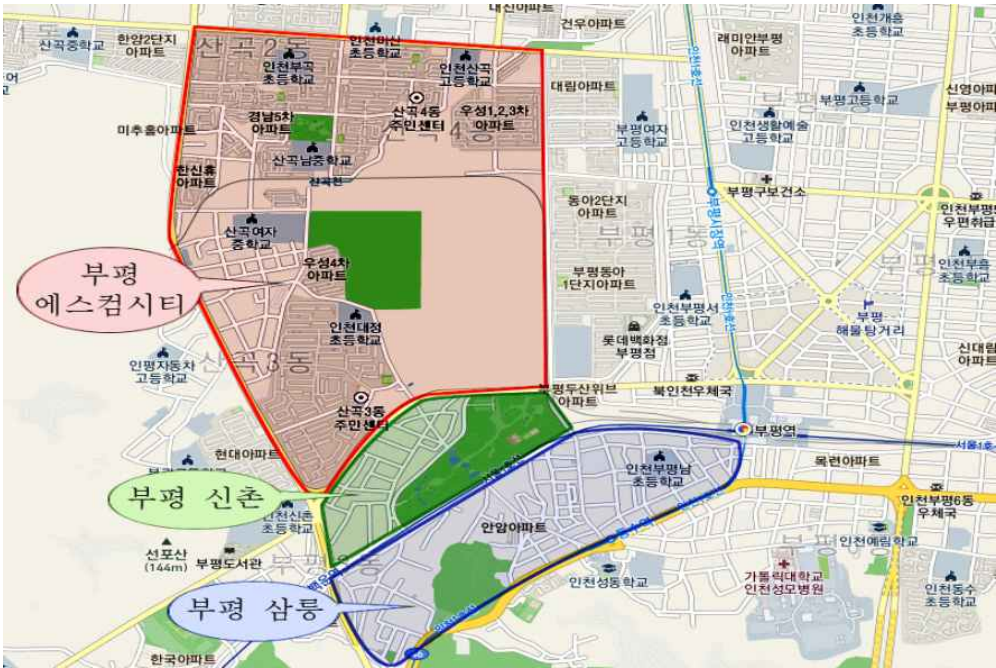
1. 들어가며

제주에는 올레길이 있다. 제주 오름을 걷는 길을 올레길로 명명해서 사람들에게 제주가 지닌 지리적 풍광을 널리 알려내는 것이 제주 올레길이다. 오름이 제주에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제주 올레길이 생기면서 제주도도 먼 섬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섬으로 다가왔다.

제주 오름이 있어서 올레길이 생겼다면 이젠 부평 도심에도 둘레길을 만들 무형의 자산이 존재하고 있다. 20여 년간 부평은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였던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을 만들어서 부평이 지닌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일을 시작한다. 제주 오름과 같은 자연은 존재하지 않는 부평에서 대중음악둘레길을 만드는 일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부평은 한반도 내에서 미국 대중음악을 집중적으로 받아내면서, 그것도 광범위하게 수용한 장소로서는 유일하고, 이곳 부평이 한국대중음악사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이 유일한 중심 장소였던 점이 생똥맞지만 부평 도심 한가운데에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을 만들 수 있는 유일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1코스 - 부평 에스컴시티(대중음악 소비공간)

부평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79년대 중반까지 한국대중음악사에 큰 족적을 새긴 곳이다, 미8군의 가장 큰 기지 에스컴시티 (미군수지원사령부)가 부평에 자리 잡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대중문화가 한반도에 가장 큰 규모로 유입되었다.

부평 에스컴시티에는 미8군의 미군지원사령부가 자리잡았다. 미국 본토의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진출되어 오면 보충대가 설치된 에스컴시티에

반드시 거쳐 가야하는 곳이기에 한반도 내 미군기지 가운데 상시적, 유동적 미군 전략이 가장 많았던 특징을 지닌 곳이다.

1962년 7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부평 애스컴시티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노무자가 8천여명, 미군위안부는 1천 8백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었다는 기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부평 애스컴시티에는 수많은 미군들이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평 애스컴시티만 7개 캠프가 있었고, 미8군의 위락시설로 분류된 클럽도 한반도 내에서 가장 많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애스컴시티 클럽은 22 개로 장교클럽, 부사관클럽, 사병클럽, 극장으로 구분해서 존재했다.

부평 애스컴시티에는 4개의 큰 규모의 Camp Market, Camp Grant, Camp Taylor, Camp Tyler와 작은 규모의 3군데 Camp Adams, Camp Harris, Camp Hayes 포함, 크고 작은 작은 7개 캠프로 구성되어 있다.

부평 애스컴시티에는 보급창, 의무대, 공병대, 통신대, 항공대 등의 미군 부대들이 자리 잡았다. 121후송병원, 55보급창, 6의무보급창, 565공병자재창, 19병기창, 44통신대, 512정비대대, 55항공대, 8057보충대, 37공병대, 8057 보충대, 37보충대, 76보충대, 79병참대대, 44공병대, 76공병대, 70자동차부대, 74자동차부대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재 부평 캠프마켓 (Camp Market)면적은 약 44 만 m²이다. 행정구역상 부평구 산곡 3 동과 산곡 4동에 걸쳐 있다. 캠프마켓만 남아 그 규모는 크게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캠프마켓은 2011 년 기준으로 군인 1명, 군무원 10명 한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민간인 30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 육·공군 교역처 베이커리 (AAFES BAKERY) 공장만 가동 중에 있다.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은 최신 미국 대중음악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었

던 공연장이었기에 대중음악이 소비되었던 자산으로 바로 무방할 것이다.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에는 미8군 오디션을 통과한 한국 연주자들이 밴드를 구성해서 공연했다.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에서는 매일 밤 한국인 밴드들이 미군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연주하였던 이유로 한국인 밴드 구성원들은 늘 미국의 최신 대중음악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이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새로운 미국 대중음악의 리듬감각을 한국인 밴드 연주자들이 어느 곳보다 집중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부평에서 연출된 셈이다.

이런 밴드 연주자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리듬을 익히게 되면서 한국 대중음악이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이기에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 클럽은 한국 대중음악사에 큰 기여를 한 장소이자 한국 대중음악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대중음악사에 새로운 장을 마련해 준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들을 기억하고 그 장소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곳에서 연주한 한국인 밴드 현황, 밴드가 연주한 곡들을 죄 찾아내어 기록하고 발굴해서 널리 알려내는 일은 부평지역사를 두텁게 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부평 애스컴시티 주변으로 한국대중음악 중심지로서 그 의미를 간직한 장소 주변으로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1 코스를 조성하는 것은 부평지역사와 한국대중음악사를 폭넓게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마땅하게 진행되어야 할 일일 것이다.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은 대중음악의 소비 공간으로서, 한반도에서 미국 대중문화의 최대 수용지로서 부평 애스컴시티의 역사성을 복원한다는 측면과 더불어 지역사 관점에서도 뜻깊은 미래 지향성을 띤 실천이다.

이와 더불어 부평에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이 가능한 이유는 소비 공간만

존재했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중문화의 유통, 창작 영역이 동시에 존재할 때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은 조성 명분이 생길 수 있다. 부평에서는 대중음악의 소비공간으로서 부평 애스컴시티 뿐만 아니라, 유통 공간과 창작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이 대중문화 관점에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부평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애스컴 부대에서 연주되었던 드럼.
2015 부평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 '신촌 다시보기' 전시 장면

3.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부평 신촌 (대중음악 유통공간)

대중음악의 유통공간으로 부평 신촌은 미군전용클럽이 22 군데나 있었던 장소였다. 부평 신촌은 미국의 대중음악을 한국인들도 접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고도 미군전용클럽이 밀집해 있었던 곳이었다.

부평 신촌에 존재했던 22 군데 미군전용클럽 주변을 연결해서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를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부평 신촌이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로 가능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대중음악을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고, 미국의 대중음악이 한국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던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 대중음악의 대중성과 역사성이라는 측면에서 유통공간이었다는 것만으로도 부평 신촌은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로서의 의미가 있는 곳이다.

4.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 - 부평 삼릉(대중음악 창작레지던스 공간)

특히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는 한국 대중음악에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낸 창작 영역을 담당할 장소로서 부평 삼릉이 적임지다.

부평 삼릉은 한국대중음악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로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장소이다. 여태껏 부평 대중음악을 이야기할 때 미군부대 중심으로 곧 수동적 관점에서 접근해 오다보니 부평이 그저 미군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대중음악으로만 인식되는 태도를 보였고, 앞선 연구자들도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수동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고, 한국의 대중음악 리듬을 개척한

적극적인 관점에서 부평 대중음악을 인식하는데 부평 삼릉은 창작 레지던스 공간으로 막중한 역할을 담당했던 장소로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부평 삼릉은 미8군 오디션을 통과한 밴드 연주자들이 집단적으로 200여명~300여명이 늘 20년 동안 거주한 공간이었다는 점을 대중음악에 관심을 둔 이들이 간과하는 바람에 부평이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말았다.

서울에 자리한 미8군 사령부에서 오디션을 통과한 한국인 밴드 연주자들은 부평 삼릉에서만 배차되는 미8군 버스를 타고 부평 애스컴시티, 경기도 의정부, 파주 등 미군기지 클럽으로 연주하기 위한 출퇴근을 해야만 했다.

부평 삼릉은 미군클럽에서 연주하는 한국 밴드연주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부평 삼릉의 낮 시간에는 밴드 연주자들이 악기 연습을 하는 진풍경이 늘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부평 삼릉은 미군철수가 이어진 1970년대 초반까지 전국에서 모여든 실력 있는 청년 연주자들 200~300여명이 집단적으로 모여 산 계토와 같은 장소로서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보기 드물고 유일하게 연주자들이 집단 거주한 진풍경이 연출된 곳이 바로 부평 삼릉이라는 콘텐츠를 이제서야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는 민간차원에서 부평 삼릉을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부평 삼릉은 한국 대중음악 연구자들조차 애써 주목하지 하지 않았다. 부평 삼릉은 20여년간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지로서, 창작 레지던스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한 곳인데, 여태껏 이런 가치를 발견하거나 재인식하지 못한 결과 부평이 대중음악도시로 힘입게 나아가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부평 삼릉에 거주한 대중음악 연주자들을 발굴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부평 삼릉을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에서 가장 중요한 코스로 인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평 삼릉은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가수 배호가 처음 미국 대중음악을 접한 곳이기도 하고, 부평 애스컴시티에서 드러머 연주자로 대중음악의 첫발을 디딘 장소로도 기억되어야 할 만큼 한국 대중음악사에 가장 중요한 장소로 부평 삼릉은 재인식되어야 할 곳이다.

5. 나오며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은 부평 지역사와 한국대중음악사 관점에서도 누구라도 대중음악의 자산을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부평 애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을 잇는 일은 부평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부평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해야 할 역사적 과업인 셈이다. 그래서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는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을 이미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 부평에서 놀고 여기서 미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6차 포럼(답사): 8월 18일(토) 부평 신촌, 부평 락캠프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일시 : 2018. 8. 18(토) 17:00~19:30

장소 : 부평 신촌 일원 및 락캠프

▣ 부평 신촌 현황 및 음악클럽(미군전용) 분포도





그림 45 부일옥 - 드림보트 클럽 자리 : 현재 클럽 원형을 그대로 유일하게 남아 있음.

연번	위치	장소	유무	비고
1	부평 신촌	아리랑클럽	있음	공연 가능.
2	부평 신촌	드림보트클럽	있음	백인전용클럽, 부일목
3	부평 신촌	세븐클럽	있음	컨트리 음악을 연주한 클럽이다.
4	부평 신촌	키클럽	없음	백인선호
5	부평 신촌	화이트로즈(송도홀)	없음	백인 군인 전용, 밴드연주가능.
6	부평 신촌	홍콩홀	없음	
7	부평 신촌	서브달러클럽	없음	흑인 전용 클럽
8	부평 신촌	플레이보이 컨츄리 (뉴컨츄리클럽)	없음	백인 전용 클럽
9	부평 신촌	브라더 클럽	미확인	*새로 발견(키클럽 맞은편)
10	부평역 근처	아폴로클럽	있음	*1969년 12월 오픈. 1990년대 문 닫음
11	부평 삼릉	유니버설클럽	있음	*부평 삼릉, 1980년 중반 운영.
12	부평 삼릉	원더클럽	없음	*부평 삼릉, 정확한 위치 파악 안됨
13	부평 청천동	로타리클럽	없음	*부평 청천동.
14	부평 신촌	맘보홀	없음	흑인선호
15	부평 신촌	그린도어클럽	없음	
16	부평 신촌	신일홀	없음	
17	부평 신촌	신정홀	없음	
18	부평 신촌	신세계클럽	없음	
19	부평 신촌	수도클럽	없음	
20	부평 신촌	평양홀(뉴목홀)	없음	
21	부평 신촌	부산홀	없음	
22	부평 신촌	하니문클럽	없음	

7차 포럼: 9월 11일(화) 오후 6시 부평 락캠프

부평 삼릉, 대중음악 자산(자료)


발제 : 이장열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연구]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포럼(7회차)

부평 삼릉 대중음악자산과 그 가치

2018. 9. 11(화) 오후6시
부평 락캠프

이 장 열 대표/문학박사(ASCOMCITY MUSIC ART F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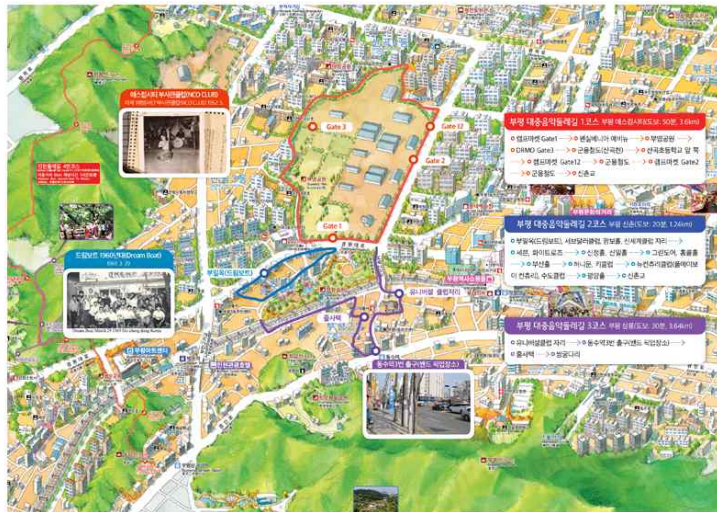
주관: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후원: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부평 삼릉-약사

- 삼릉은 '삼릉 사택'의 준말. '삼릉'을 한자로 쓰면 '三陵'이다. '세 개의 마름모'란 뜻이다.
- '삼릉(三陵)'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의 회사 이름이자 '쓰리 다이야 마크(スリーダイヤ・マーク)'라고도 부르는 회사 문양의 명칭이다.
- 일본 기업의 이름이 마을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정착했다. 예전 사람들은 부평 삼릉을 JV(japan village)로 불렀던 이유다.

부평 신촌 - 현황



부평 삼릉 대중음악 자산 - 범주

- 대중음악 창작 레지던스 공간
- 미8군 오디션 통과 뮤지션 : 300여명 집단 거주
- 미8군 뮤지션 픽업 장소(현 동수역 3번출구):
- '돌아가는 삼각지' 가수 배호 거주: 애스컴시티에서 드러머 활동

부평 삼릉 대중음악 자산 - 뮤지션

차차차 오남매(부평 올리브요양병원 차경수 원장)

김윤옥(미8군 최초 국내 밴드 구성인)

이관섭(부평 애스컴시티 121부대 클럽 뮤지션)

토미스밴드(1950년 9월 결성),

록엔비트(8사단 군악대 출신 강대영),

뉴컴(색소폰 연주자 이관섭 주도)

부평 삼릉 대중음악 자산 - 뮤지션

힐탑(피아니스트 오윤성 운영)

새미

스타라이, 탭팻(유선준 운영)

부평경찰학교 악대,

한명숙

걸시스터즈,

리나박, 최선미, 패터김, 미스K

배 호

차영수(부평 신촌 화이트로즈 운영)

김홍탁(1963년 록밴드 키보이스, 히파이브, 히식스 활동)

부평 삼릉 대중음악 자산 - 뮤지션

임종임(1968년 인천 출신 여성들로 구성된 걸밴드 '레이드 버즈'

이길레(1970년대 걸시스터즈-도토리 자매 활동)

김삼순(1948년 부평 출생, 걸밴드 레이드 버즈 멤버)

김대환(호적에 강대환, 1960년대 신중현과 ADD4 결성)

이진동(고석만 악단 일원)

최영훈(드럼펫 연주자)

트로바더스(부평 화이트로즈에서 연주)

리틀캐츠(7인조 밴드)

탑 스텝스, 데블스(Devils), 에인젤스, Happy Time,
TOPHAT, STARDUST, STARLIKE(고만석 경찰악대 출신)

부평 삼릉 - 내부



삼릉 즐사택



동수역 3번 출구(뮤지션 픽업 장소)

부평 삼릉 대중음악 자산 - 활용방안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 조성 - 2018년
* 리본 제작 및 달기(2018년 9월 16일 일요일)
- 기념 밴드 공연 등 - 2018년 9월 16일 부평공원
- 미군전용클럽 운영 및 위치 고증 연구 - 2019년
- 미군전용클럽 앞 표지판 설치 - 2019년
- 배호 추모 음악제 추진 - 2019년

부평 삼릉 대중음악자산 비전과 과제

[비전]

- 한국 대중음악의 창작 레지던스 공간
 - 미8군 미군부대 클럽 뮤지션 픽업 장소-유일성
 - 300여 명의 뮤지션 집단 거주 - 계토성
 - @ 청년 뮤지션들의 창작과 연주 공간
 - @ 새로운 리듬 수용과 한국적 리듬 창작
- 기반
- 한국 대중음악 창작 레지던스 공간으로서의 의미와 가치 부여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 조성
 - 부평 삼릉에 청년 뮤지션 관련 자료실 구축(ex: 부평 대중음악 역사전시실)

[과제]

- 부평 삼릉의 대중음악의 역사성을 살리는 개발 계획 수립
- 부평 대중음악 자산에 대한 지역민들과 결합력 강화

감사합니다.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 : 부평 삼릉 일원

일시 : 2018. 9. 15(토) 16:00~18:30

장소 : 부평 삼릉 일원, 부평 락캠프

■ 부평 삼릉의 대중음악 자산- 창작 레지던스 공간

1. 음악 뮤지션 300 여명 집단 거주 : 미8군 오디션 통과 뮤지션
2. 음악 뮤지션 픽업 - 지하철1호선 동수역 3번 출구(옛 경인가도);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미8군이 직접 뮤지션들을 픽업한 장소로서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부평 삼거리에서 지금 동수역 3번 출구로 픽업 장소 이전한 것으로 파악¹⁾
3. 가수 배호 : 현재 부평 삼거리역 근처(신명재단 입구) ㄷ자 한옥에서 1961년에 1년 정도 거주하면서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서비스클럽에서 드러머로 활동함(박현호 선생님의 증언)
4. 창작 레지던스 공간 : 미국의 팝 음악을 듣고 그 리듬에 맞춰 밴드 연주를 한 당시 청년 뮤지션들의 창작 거점이자 밴드 결성을 원활하게 한 장소

1) 박현호(1941년생) 선생님 증언: 1961년도에는 현재 부평 삼거리 쪽에서 미8군 GMC 트럭으로 뮤지션들을 픽업했다가 1960년도 중반 이후에 현재 동수역 3번 출구 부평 삼릉으로 이전했다고 함.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

부평 삼거리 배호 거주지 → 동수역 3번 출구 → 유니버설 클럽 자리
→ 줄사택

▣ 유니버설 클럽

- 최무룡, 구봉서, 이대엽 등이 출연한 ‘돌아오지 않는 해병대’(1963년)의 영화 촬영지로 추정됨
- 이대엽, 남보원 등이 출연한 고영남 감독의 ‘공수특공대작전’(1977년 제작)이란 영화에서 유니버설 클럽 내부가 소개됨.



그림 57 '공수특공대작전'(1977년) 부평 삼릉에 자리했던 유니버설 클럽(옛 부평 북부여중 정문 맞은편) 내부 모습. 사진 속 색소폰 연주자는 강오식 선생님이다.

9차 포럼: 9월 6일(일)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답사.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조성 축하공연(부평공원)



<그림 58> 부평 캠프마켓 2번게이트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1코스



〈그림 59〉 부평 삼릉 유니버설 클럽 자리 앞-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



그림 60 부평 삼릉 출사택-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



<그림 61> 부평 신촌 드림보트 클럽 자리(현재 부일옥)-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그림 62> 부평 동수역 3번 출구 앞-미8군 픽업장소: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



<그림 63> 부평 대중음악동레길 조성 축하공연-정유천 블루스 밴드



<그림 64> 행사 현수막

10차 포럼: 9월 22일(토) 부평 애스컴시티, 부평 락캠프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관공자원화 전략
대중음악, 부평의 미래 살림이다.

▣ 부평, 미래 가치(유일성)

- 넘버 1. 부평,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
- 넘버 2. 부평, 한반도 최대 미군기지 주둔지
- 넘버 3. 부평, 한반도 평화 메시지 전달할 상징 장소

▣ 부평,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 - 미래가치

- 대중문화 3박자 시스템을 갖춘 한반도에서 유일한 곳-부평(생산, 유통, 소비)
 - 대중음악 소비 공간: 부평 애스컴시티²⁾
 - 대중음악 유통 공간: 부평 신촌
 - 대중음악 창작(레지던스) 공간: 부평 삼릉
 - 파주, 의정부, 구미, 부산 등은 대중음악을 소비만 한 장소)

2) 미군수지원사령부(ASCOMCITY)

■ 대중음악 최대 시장 형성 (1950년대 중 ~ 1970년대 초)

- 부평 애스컴시티: 22개 음악클럽
- 부평 신촌 일대 : 22개 미군전용클럽
- 부평 삼릉: 200~300여명 뮤지션 거주
 - 배호(돌아가는 삼각지) 부평 삼거리 쪽에서 거주. 1961년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서비스클럽에서 드러머로 활동)
 - 1962년 부평 애스컴시티: 한국인 종사자 8천 여 명, 미군위안부 1천8백 여 명(동아일보)
 - 1956년 10월 라디오 매체 대량 보급: 부평지역 1,010대³⁾

■ 비 전

1. 부평을 세계적인 대중음악 관광 명소로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2. 부평을 세계적인 대중음악 공연장을 조성한다.
3. 부평을 대중음악 관련 콘텐츠와 시설, 사람들의 집합체로 육성한다 (대중음악의 실리콘밸리 형성: 유튜브, 구글 유치 등)

■ 핵심 사업

1. 매년 ‘애스컴시티피스페스티벌’(ASCOMCITY PEACE FESTIVAL) 개최
 - 2박 3일 일정으로 부평 미군기지 터에서 전 세계적인 음악페스티벌 추진⁴⁾

3) 인천시 라디오 보유 대수는 6,037대.

4) 한국 대중음악을 이끈 부평은 미군기지였던 장소에서 이념과 지역의 경계가 없는 대중음악 밴드공연을 통해서 북·미간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기원하는 행사로서는 미국의 입장에

- 조직위원회 구성(2018년 9월 중)
- 클라우드딩 펀드, 후원회 조직 등으로 민간 주도형으로 진행
- 2019년 7월 27일(정전협정 체결일)

2.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1,2,3코스 조성

- 1코스: 부평 애스컴시티, 2코스: 부평 신촌, 3코스: 부평 삼릉
- 2018년 9월 14일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주변 '리본 달기' 행사 개최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기념 밴드공연(9월 14일: 부평공원)
- 2019년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 주변 표지판(QR) 설치 추진
- 2019년 유명관광코스로 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

3. 부평 대중음악 문화관광 상품화 추진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관광 상품화
 - 국내인(부평역), 외국인(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항) 상대 관광 유입 콘텐츠 개발 및 정보 제공
 - 주말을 이용한 둘레길 코스에 밴드 음악 관람하면서 먹는 코스 개발
 - 자전거를 타고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도는 코스 개발(자전거 협조)

- 매년 '애스컴시티피스페스티벌'개최
 - 부평 미군기지 터에서 반전/평화/우주의 메시지를 음악 공연

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 부평 지역문화예술 역량들이 직접 결합해서 축제 공연
-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상설화

▣ 협력

- 공동 협약서: 부평구와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중음악 공동협력
 - 부평 대중음악을 활용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사업 추진 등
- 애스컴시티피스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공동 구성

11차 포럼: 9월 29일(토) 부평 신촌, 부평 락캠프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BMW(Bupyeong Musicer Walking) 양성 전략

발제 : 이장열 대표/문학박사(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일시: 2018. 9. 29(토) 16:00~18:30

장소: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부평 신촌, 부평 락캠프

▣ 부평 BMW 양성 취지

- 부평의 대중음악 자산들을 부평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구체적으로 대중음악의 역사를 알려내게 위함
- 부평이 한국 대중음악 중심지였음을 홍보하기 위함
- 대한민국 최초로 조성한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에 얽힌 대중음악관련 이야기를 관광객들에게 생생하게 정기적으로 전달하기 위함.

▣ 부평 BMW 양성 프로그램 계획

- 과정: 교육 6차, 실습(4차), 수료(1회) 매회 2시간
- 대상: 부평시민 또는 부평 대중음악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 정원; 10명(상반기/하반기) *민간자격증(부평구와 협의)
- 접수기간; 2019년 2월 한달 동안/교육 시작: 3월 첫째주 토요일
- 교육 및 실습 내용

구분	내용	장소
교육 (6회차)	1. 부평은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였다. 2.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1코스: 부평 애스컴시티 대중음악 자산 3.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부평 신촌 대중음악 자산 4.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 부평 삼릉 대중음악 자산 5.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의 의미와 가능성 6. 부평의 미래 가치로서 대중음악이 놓인 자리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일원, 부평 락캠프, 부평구 일원
실습- 현장답사 (4회)	1.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1코스: 부평 애스컴시티 주변 2.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부평 신촌 3.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 부평 삼릉 4.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전코스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일원, 부평 락캠프, 부평구 일원
수료	부평 BMW 수료식	

▣ 부평 BMW 운영 계획

□ 안내소 설치:

- 1)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 : 부평 동수역 3번 출구 또는 근처
- 2)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 부평 신촌 부일옥 앞 또는 근처
- 3)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1코스 : 부평 캠프마켓 근처 공영주차장

□ 운영

- 1) 매주 토요일 오후12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
 -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5시(답사 코스 답방객 출발)
- 2) 안내소별 부평 BMW 2명 배치(순차적으로 6명 운영)
 - 코스 안내자 → 2코스 안내소에 2코스 안내자에게 인계하고 대기하는 식으로 운영

□ 설치 방안

- 1) 부평 BMW 안내소 설치는 부평구와 협의해서 진행
- 2) 둘레길 주변 사무실과 중요 공공기관 시설 또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12차 포럼: 10월 9일(화) 부평 삼릉, 부평 락캠프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전략

발제: 이장열 대표/문학박사(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일시: 2018년 10월 9일(화) 오후6시

장소: 부평 락캠프

주관: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후원: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취지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을 부평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부평의 대중음악 자산을 널리 알려냄으로써,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서 부평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전략(방안)

1.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운영하는 사업단체 결성 -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 (1) 2018년 12월까지 사업체 결성
 - (2) 예: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2.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안내소 3개 장소 구축

(1) 안내소 위치(안)

- 1코스 안내소- 부평 에스컴시티
- 2코스 안내소- 부평 신촌: 부일옥
- 3코스 안내소- 부평 삼릉: 동수역 3번 출구, 박재란 위원장

(2) 안내소 구축 방안

- 예산 확보: 부평구청 등 매칭(제안 사업), 공모 사업 신청 등 다양화
- 기존 건물 활용 방안(협력사업)

3.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가이드 양성(일명 "부평 BMW" ⁵⁾Bupyeong Musicer Walking)

(1) 부평 BMW 양성 프로그램 추진

- 교육 6회차, 실습답사 4회차, 수료
- 2019년 3월 실시.
- 부평 BMW 1기: 10명 양성
- 예산: 비예산

5) 부평 뮤저는 부평이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임을 알고, 대중음악(특히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부평 대중음악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 요원임.

〈부평 BMW 양성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장소
교육 (6회차)	1. 부평,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였다. 2. 부평 애스컴시티 대중음악 자산-대중음악둘레길 1코스 3. 부평 신촌 대중음악자산-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4. 부평 삼릉 대중음악자산-대중음악둘레길 3코스 5.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의 관광자원화 6. 부평 미래가치로서 부평 대중음악	부평 락캠프
실습-답사 (4회차)	1. 부평 대중음악둘레길1코스 답사-부평 애스컴시티 2. 부평 대중음악둘레길2코스 답사-부평 신촌 3. 부평 대중음악둘레길3코스 답사-부평 삼릉 4.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코스 답사	부평 일원
수료	수료식 - 부평 BMW 수료	부평 락캠프

4.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관광문화코스 정례화

- 1) 매주 토요일 정례화: 2019년 3월 첫째 주부터 시작
- 2) 출발지(동수역 3번 출구) → 부평 부일옥 → 부평 캠프마켓 게이트2(종착지)
- 3) 각 안내소마다 2명 부평 뮤지 운영(총 6명)
 - (1) 안내 시간 : 오후1시, 오후3시, 오후5시
 - (2) 회당 가이드 인원 : 20명 내외.

- 4) 대중음악둘레길 관광 가이드 접수 및 비용
 - (1) 접수 : 홈페이지(www.ascomcity.com) 신청
 - (2) 비용 : 1인당 3천원(뱃지 제공, 대중음악둘레길 코스 지도 제공)
 - (3) 지불 방식 : 홈페이지 접수 신청 때 결제(결제시스템 구축, 카카오페이 등)

5.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BMW 방송 채널 가동
 - 1) 유튜브f 매주 토요일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현장의 소리를 전함
 - 2) 2018년 11월 중에 구축

■ 홍보 방안

□ 홍보 전략

- 1)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이 한국에서 최초
- 2)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에는 밴드음악도 감상
- 3)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에는 먹거리도 있음

□ 홍보 수단

- 1) 홈페이지, SNS 구축
- 2) 유튜브, 페이스북

13차 포럼: 10월 30일(화) 부평 락캠프

부평 대중음악을 기억하다 - 4인 토크쇼

부평
대중음악을
기억하다
4인 토크쇼!

10월 30(화)오후3시~오후5시
부평 락캠프

1부: 4인 토크쇼
2부: 축하 밴드공연(정유천 블루스 밴드)

01	02	03	04
강오식 » 부평 삼릉 유니버سال클럽 하우스밴드 마스터	임명철 » 부평올스타빅밴드 지휘자	박현호 » 부평 에스컴시티 미8군클럽 스타다스트 드러머	정유천 » 인천밴드연합 대표

진행 | 이장열 문학박사(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
참석 | 누구나
주소 | 락캠프(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81-3, 지하층(부평구청역 근처))

주관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후원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취지

- 애스컴시티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이뤄진 부평에서의 대중음악과 관련된 기억들을 당시 청년이었던 부평 사람들에게 직접 들어서 이를 기록하여, 향후 부평 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역사적 근거를 마련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의 역사 문화적 기반 마련과 함께,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에 풍부한 대중음악 스토리를 보태기 위함

■ 개요

- 제목 : 부평 대중음악을 기억하다 - 4인 토크쇼
- 일시 ; 2018년 10월 30(화) 오후3시~오후5시
- 장소 : 부평 락캠프
- 진행 : 이장열 문학박사(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
- 주관 :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 후원 ;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참석 : 누구나

■ 토크쇼 대상

이름	경력	비고
강오식	전 유니버설 하우스밴드 마스터	
임명철	애스컴시티 미8군 클럽 연주자 부평 올스타빅밴드 연구자	
박현호	전 스타더스 밴드 멤버 애스컴시티 미8군클럽 하우스밴드 연주자	
정유천	인천밴드연합 대표	

■ 진행 방식과 내용

- 참여 : 4인(각자 중점 질문 2개 사전 전달, 자유 질문 1개) ; 사전
조율
- 기록 : 사진, 녹음, 영상 촬영(부탁)
- 유튜브 생방송 → 페이스북 복사
- 토크쇼 시간 : 1시간 30분 정도.

■ 홍보 방안

- 웹자보 제작 배포(SNS)

■ 성과

- 박현호(1941년생) 선생님이 1961년 가수 배호가 부평 삼거리 방향에 있던 집에서 거주한 사실과 함께 드러머를 동갑내기 배호에게 배웠다는 것을 증언해 주었고, 배호는 1년 남짓 부평 에스컴시티 미군기지 음악클럽이 아니라 서비스클럽(악기가 마련되어 있는 장소)에서 드러머로 활동했음을 확인해 주었음
- 박현호 선생님과 강오식 선생님께서 1960년대에 부평 삼릉에서 전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 서울 용산으로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인 진공관 기타 앰프를 만든 20SEGI 사장이라는 사실도 증언해주었음. 이런 증언들이 부평이 한국 대중음악에서 큰 영향을 미쳤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됨.
- 향후 배호의 부평에서의 행정과 거주지에 대한 고증 작업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진공관 앰프를 만든 이에 대한 후속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고 여겨짐.

▣ 4인 토크쇼: 페이스북 영상

https://www.facebook.com/100001625273306/videos/2126251224105699/UzpfSTewMDAwMTYyNTI3MzMwNjoyMTMxNTk3MDMwMjM3Nzg1/?id=100001625273306&fref=nf&__tn__=%2Cdm-R-R&eid=ARAdk77JJXd5JGxiHp2JSkvLERMa6EajCeXVODss00aS22sFzXHhS4R-MuTw5UJrjpZ0z_tJAlzsLcE

14차 포럼: 12월 8일(토) 부평 락캠프.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연구 결과보고회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연구 결과보고회

“부평=대중음악이다”

1부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연구 결과보고
2부 축하공연(정유천 블루스 밴드)

2018. **12.8**(토) 오후5시
부평 락캠프

주관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후원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연구 결과보고회
“부평=대중음악이다”


1부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연구 결과보고 2부 축하공연(정유천 블루스 밴드)

2018. 12. 8(토) 오후5시 부평 락캠프 주관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후원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평대중음악둘레길 조성연구 결과보고회 현수막



<그림 70>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연구 결과보고회



<그림 71>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연구 결과보고회 축하공연-1



<그림 72>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연구 결과보고회 축하공연-2

1. 부평이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지였던 역사적 사실들을 부평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부평시민들이 조성한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을 답사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의 계기 마련.

매체	제목	게재 URL	게재일
국민일보	대중음악 20년 중심지 역할 부평 자산활용 “펜타포트락페스티벌 변곡점 만들 수 있을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15522&code=61122012&cp=du	7월 11일
국민일보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21일 대중음악둘레길 공식 답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35747&code=61121111&cp=du	7월 19일
인천in	'부평대중음악' 둘레길 3개코스 조성	http://www.incheonin.co	7월 19일

	<p>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21일 첫 답사</p>	<p>m/2014/news/news_view.php?m_no=1&sq=44660&thread=001001000&sec=2</p>	
인천뉴스	<p>한국 대중음악 중심지였던 부평 미군 캠프마켓 주변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한다</p>	<p>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868</p>	7월19일
국민TV뉴스	<p>한국 대중음악 중심지였던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오는 21일 부평대중음악둘레길 1코스 캠프마켓 답사</p>	<p>http://kukmin.tv/detail.php?number=27152</p>	7월19일
내외 뉴스통신	<p>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부평대중음악둘레길' 1코스 답사... 누구나 참여가능</p>	<p>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25</p>	7월20일
국민일보	<p>부평 대중음악 음악도시 계보잇는</p>	<p>http://news.</p>	7월 22일

	<p>사람연대 본격화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p>	<p>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42123&code=61122012&cp=du</p>	
시각	<p>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이미 있었다</p>	<p>http://spacebeam.net/index.php?page=2&document_srl=939604</p>	<p>격월간 [시각] 2018/7.8 월호</p>
국민일보	<p>[And 지역 리포트] '음악 도시' 부평의 아름다운 시절을 아시나요</p>	<p>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87088&code=11131411&cp=du</p>	<p>8월 1일</p>
국민일보	<p>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추진 본격화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팝송의 명소 연결 대중문화자산 활용 앞장</p>	<p>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71544&code=61121111&cp=du</p>	<p>8월 2일</p>

내외 뉴스통신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답사 진행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80	8월 19일
아시아뉴스 통신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부평 신촌 답사	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1358347	8월 20일
경인투데이 뉴스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부일옥(드림보트' 음악클럽) 부평 대중음악자산 보존 활용 시급	http://www.ktin.net/h/contentxxx.html?code=newsbd&idx=403273&hmid x=9	8월 21일
인천in	“부평 ‘부일옥’ 흔적 부평 대중음악자산 보존활용해야” 지난 18일(토)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부평 신촌 답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5125&thread=001001000&se	8월 21일

		c=2	
인천일보TV (영상)	뉴스6 - '부평 대중음악 돌레길' 만들자 / 이장열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1685	8월 22일
인천in	부평 대중음악돌레길 걷기 행사 16일 개최 정유천 블루스 밴드, 올 스타 빅 밴드 등 공연도 함께 열려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5543&thread=001001000&sec=2	9월 14일
국민TV (영상)	인천 부평에 한국 최초 '대중음악돌레길' 조성	http://kukmin.tv/detail.php?number=28278	9월 16일
유튜브 (영상)	부평대중음악돌레길 조성 기념 축하공연	https://www.youtube.com/watch?v=XI5iljJvj4	9월 17일

유튜브 (영상)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기념 축하공연	https://www.youtube.com/watch?v=FYBCM6TVB34	9월 17일
유튜브 (영상)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답사	https://www.youtube.com/watch?v=7vIKIFrHSFs	10월17일

2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조성하였고, 대중음악둘레길 지도를 만들고, 리본을 제작하여 부평 구민들에게 배포하였음.



〈그림 73〉 부평대중음악둘레길 배지

부평 에스컴시티 (1960년대)
Camp Market, Camp Grant, Camp Taylor, Camp Tyler, Camp Adams, Camp Harris, Camp Hayes 7개 캠프 구성



에스컴시티(ASCOM CITY : Army Service Command City):
미 군수지원사령부

- 1945년 8월 - 일본 육군 조병창(무기제조공장) 자리에 미24군수지원단 ASCOM24 주둔
- 1945년 9월 16일 "에스컴시티" 명명
-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직후 미해병대가 다시 주둔
- 1973년 6월 30일 에스컴시티 공식 폐쇄
- 2018년 현재 캠프마켓(Camp Market) 운영. 캠프마켓 면적 약 44만㎡

✓ **부평 에스컴시티(ASCOMCITY) 대중음악 자산 - 소비공간**

- 영내 음악클럽(극장 포함) : 22군데
- 한국인 밴드 연주자 : 미8군 오디션 통과
- 미국 대중음악
- 미국 : 음악 소비자(현유층)

✓ **부평 신촌 대중음악 자산 - 유통공간**

- 미군전용클럽(영외) : 22군데
- 미군위안부(이탄바 영공주) : 대중음악 매점(1962년 121800여명 거주)
- 한국 청년 : 대중음악 향유층
- 대중음악 미디어 다양 : 전속, LP반, 백반, 라디오 등

✓ **부평 상륙 대중음악 자산 - 창작 레지던스 공간**

- 유지선 300여 명 거주 : 미군8군 오디션 통과
- 동수역 3번 출구(현) : 유지선 미군 클럽 픽업 장소
- 돌아가는 삼자자 가수 배후가 거주하면서 에스컴시티에서 도라며로 활동
- 미국 팝 리듬을 기반한 많은 청년 밴드 구성 및 창작 활동 거점

부평 WALKING TOUR

한국 대중음악 중심지

부평 대중음악 돌레길

부평은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였습니다

한반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 부평 에스컴시티(영내 미군클럽 22군데), 부평 신촌(영외 미군전용 클럽 22군데), 부평 상륙(한국인 유지선 300여 명)에는 대중음악 자산들이 존재했습니다.

대중문화는 생산(창작)과 소비, 그리고 유통이 한 묶음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번성합니다. 부평은 대중음악을 매개로 창작, 소비, 유통 공간이 한반도 내에서 유일하게 존재했습니다. 부평은 한국대중음악 중심지로서 그 자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음악돌레길은 부평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한반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 에스컴시티를 품은 부평에서 반전, 평화, 우수 메시지를 기반으로 2019년에는 ASCOMCITY PEACE FESTIVAL을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는 'ASCOMCITY PEACE FESTIVAL' 조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주최: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문화와복지분과
 후원: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관광진흥재단, 인천광역시관광진흥재단

ASCOMCITY MUSIC ART FAIR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21338)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47, 부성빌딩 지하1층
Tel. 032518-1245 M.010-5798-6577 E-mail. ascomcity@kcloud.com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Tel. 032509-6065 Fax. 032509-6059 E-mail. bp21@hanmail.net

<그림 74> 부평 대중음악돌레길 지도 -1



부평대중음악돌레길

ASCOMCITY MUSIC ART FAIR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재단 | 인천광역시관광진흥재단

<그림 75> 부평 대중음악돌레길 리본(1)



부평대중음악돌레길

ASCOMCITY MUSIC ART FAIR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재단 | 인천광역시관광진흥재단

<그림 76> 부평 대중음악돌레길 리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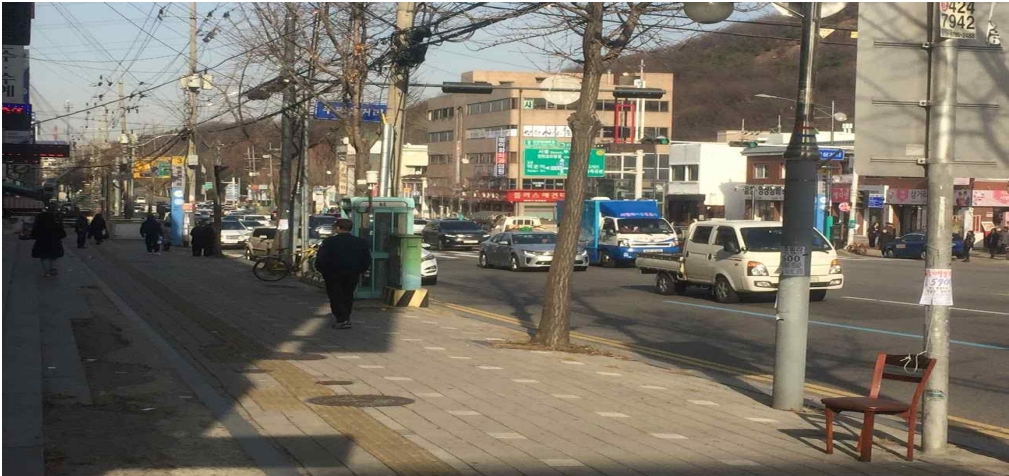
〈그림 77〉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지도-2

3. 가수 배호의 부평 거주지 확인(1961년) - 4인 토크쇼(박현호 선생님 증언)



〈그림 78〉 가수 배호가 1961년에 거주한 집 위치(현재 부평 삼거리 역 근처)

4. 미8군 뮤지션 픽업 장소는 부평 삼릉 삼거리 확인(1961년) - 부평 대중음악을 기억하다-4인 토크쇼(박현호 선생님 증언)



<그림 79> 부평 삼거리 - 미8군 픽업 장소(1961년대 초반)

5. 20SEGI 우리나라 최초의 진공관 앰프를 만든 이가 부평 삼릉에서 악기사를 운영한 사실 확인



<그림 80> 20SEGI사 진공관 기타 앰프

6. 25년 동안 부평에서 대중음악공연을 운영하고 있는 부평 락캠프를 이번 연구 조성 사업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부평 대중음악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기능을 담당함. (14차례 공간 활용)

7. 부평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연구에서 부평의 대중음악의 역사성을 부평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밴드 공연을 펼치는 행사를 부평공원(9월 16일) 야외에서 펼쳤고, 1960년대부터~1970년대까지 애스컴시티 클럽, 부평 신촌과 삼릉 등에서 밴드 활동을 한 뮤지션 4분을 초청해서 4인 토크쇼 및 축하공연(10월 30일) 열었고, 부평 락캠프에서 결과보고회 축하 밴드 공연(12월 8일) 행사를 마련한 것도 부평에서 대중음악 공연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3회 밴드 연주 공연)

8.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 연구를 통해서 부평 시민들과 함께, 부평의 대중음악자산들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평지역이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에 접근할 수 있었음.
 - 1) 한반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 부평 애스컴시티(영내 클럽 22군데: 소비공간), 부평 신촌(영외 미군전용클럽 22군데:유통공간), 부평 삼릉(한국인 뮤지션 300 여명 집단 거주: 창작레지던스 공간)에는 대중음악 자산들이 존재하였음을 자료를 통해서 발견함.
 - 2) 대중문화는 생산(창작), 소비, 그리고 유통이 한 묶음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번성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부평이 대중음악을 매개로 창작, 소비, 유통공간이 한반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존재하였음을 확인함. 그래서 부평은 한국대중음악 중심지로서 그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음을 새삼 확인함.

1. 부평 BMW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2.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안내요원 배치(10명 안팎)
3.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안내소 3군데 설치 방안 모색
4.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코스별 각 1개 표지판 설치(QR코드) 추진
5.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안내 지도 제작(업그레이드)
6.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리본 추가 제작
7.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맷지 추가 제작
8. 부평 대중음악 클럽 유치 비용(연차별 3군데)
9.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축제 개최-부평 에스컴시티 미군기지 근처(평화 페스티벌)
10. ‘자료와 인물로 본 부평 대중음악사 기초연구’ 후속 연구- 부평 대중 음악사 발간 목표

- 부평의 미래는 대중음악이다.
- 부평은 지역이다. 서울도 지역이다. 지역의식을 갖자.
- 부평 문화는 지역의 역사를 몸과 뼈 속까지 각인된 사람들이 이끌어가자.
- 부평문화권의 부활로서 부평 대중음악이 놓인다.
- 부평 대중음악은 부평 근현대사의 8할로서 그 의미와 역할을 지님을 깨달자.

반전. 평화. 우주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Restricted Area
No Trespassing
제한 구역 접근 엄금

(21338)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47, 여성빌딩 지하1층
M. 010-5798-6577 E. 77hz@hanmail.net www.ascomcity.com

※ 이 보고서는 인천문화재단 2018 '인천 문화예술 연구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